

40번째, 농기구이야기

식물을 짜는 ‘베틀’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1.7.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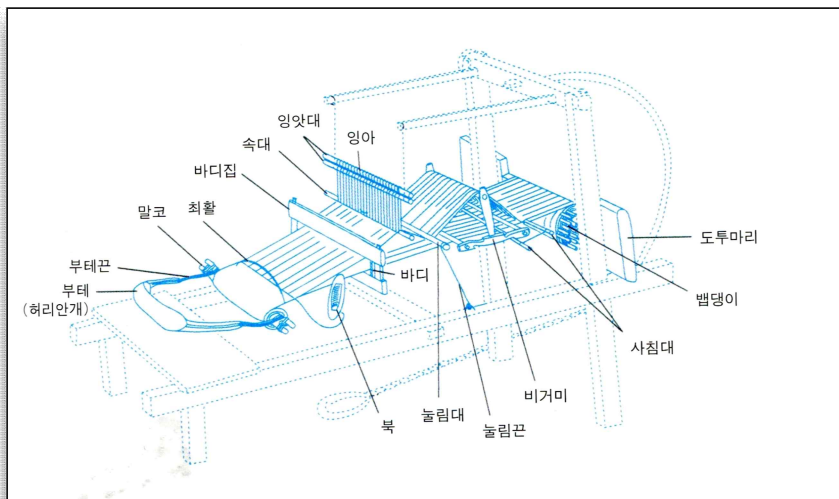
1. 베틀의 개념

베틀은 삼베, 무명, 명주 등의 섬유를 짜는 틀로 오늘날의 직조기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 18세기 말경에 편찬된 『북학의』에는 직기(織機)로 표기하였으며 『신증류합』, 『역어류해』에는 ‘뵈틀’로 나타내었다. 한문으로는 기(機) 혹은 기(幾)로 표현한다.

베. 모시 명주 무명의 직물을 짜는 모든 과정을 일컬어 길쌈이라 한다. 길쌈은 옷을 만들어 입던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삼국시대에는 여자들이 편을 지어 길쌈내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길쌈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장려되었다. 농사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 왕이 선농제를 행하고 밭을 갈았던 것처럼 왕비는 누에를 치고 잠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친잠례를 행하였다.

2. 베틀의 구조

베틀은 대부분 나무로 이루어졌으며 매우 복잡적이며 유기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직조원리는 날실(세로줄)과 씨실(가로줄)이 교차되면서 옷감이 짜여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대부분 베틀의 구조는 날실과 관련된 부분이며 가로부분인 씨실은 북을 이용해 좌우로 왕복하여 직조한다. 도투마리에서 풀려 나오는 날실을 잉아로 윗날과 아랫날로 나누고, 그 사이로 북으로 씨실을 넣은 다음 바디로 조인다. 다시 발로 신끈을 당겨 용두머리를 움직이면 눈썹줄에 매어 있는 잉아가 들리면서 윗날과 아랫날이 바뀌고, 또 그 사이에 북으로 씨실을 넣고 바디로 조이기를 반복하면서 직물을 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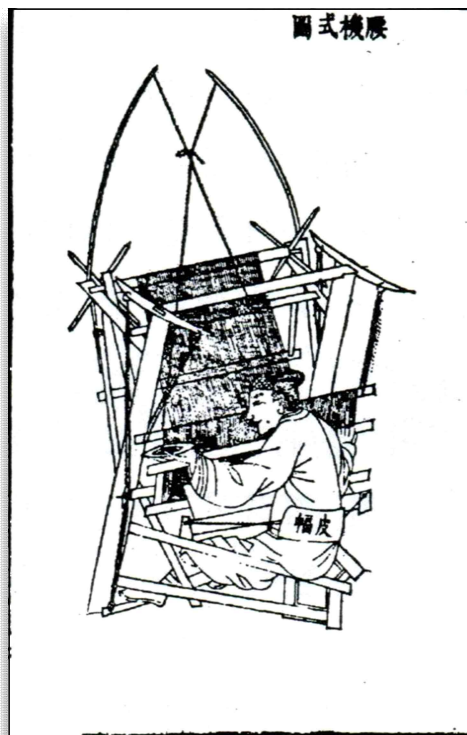


<베틀의 세부명칭> ©국립문화재연구소

베틀은 베를 짜는 사람의 동작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도구이다. 잉아를 위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직조자가 발을 당기면 줄을 타고 신나무, 용두머리, 눈썹대로 전달되고 눈썹대에 매달린 잉아가 덩달아 위로 들리면서 그 끝에 매달린 잉앗줄이 사올보다 높게 들어 올려진다.

3. 베틀의 특징

우리나라 베틀의 기본 형태는 요기(腰機)에 속한다. 요기란 날실의 한끝만을 직기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베를 짜는 사람 허리와 연결하여 날실이 직조 과정 내내 평평하게 만드는 베틀을 말한다. 베를 짜는 힘이 허리나 엉덩이에 걸리게 때문에 요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특징은 베틀의 말코 두 끝에 끈을 매어 허리에 두르는 넓은 띠인, ‘부티’라는 부속품에 잘 나타난다. 중국 명나라 말기 1637년에 지어진 ‘천공개물(天工開物)’에서 “근래에는 잘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요기로 짠 베나 비단은 매우 고르데다 튼튼하고 윤택이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기(花機)는 비단에 무늬를 내는 베틀을 말하며 중국에서 주로 쓰였다.



<우리나라 베틀과 같은 구조인 요기(腰機)> ©천공개물

우리나라 베틀의 여러가지 특징 중의 하나는 명주, 무명, 모시, 삼베 등 여러 종류의 직물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베틀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되어있어 제작과 수리가 쉬웠으며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였다.

베틀의 형태는 짜는 식물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인 형태의 베틀은 잉아(베틀의 날실을 한 칸씩 걸러서 끌어 올리도록 맨 굵은 실)가 하나뿐이어서 주로 무늬가 없는 평직직물을 짜는데 쉬웠다. 반면 씨실을 담은 북을 손으로 던져 넣어야 했기 때문에 일정한 폭 이상의 베는 짜기 어려웠다. 이로 인하여 개화기 이전에 생산된 무명베의 너비는 대부분 30cm 안팎이었다. 이후에 기계를 이용해 씨실이 왕복하면서 폭이 넓은 무명베의 직조가 가능해졌는데 이렇게 생산된 것은 폭이 넓어 광목(廣木)이라고 불렸다.



<김준근, 베짜는 모양>

피륙은 아직 굵지 아니한 베, 무명, 비단 따위의 천을 통칭하는 말이다. 베로 짠 피륙은 그 촘촘함에 따라 품질이 달랐다. 촘촘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새'로 옷감 울실의 굵기를 나타낸다. 한 새란 40개의 바디살 구멍을 말하며 바디살 한 구멍으로 날실이 두올씩 들어가므로 결국 80올이 한 새가 된다. 따라서 새의 수가 많을수록 올 수도 많아져 곱고 가는 베가 된다. 무명은 5새에서 15새까지 있으나 요즘에 짜는 무명은 대부분 6새에서 12새 까지이다.



<일제강점기의 베틀교습소>

우리나라의 베틀과는 다른 수직형태의 기계식 베틀이 도입되었다.

4. 길쌈의 과정

베틀을 이용하여 직물을 짜기 전까지 많은 준비의 과정이 있다. 면직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순서를 도식화 하며 아래와 같다. 아래의 긴 준비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베틀에서 직물을 짤 수 있게 된다.

목화재배 및 수확 → 씨앗기 → 솜타기 → 고치말기 → 실잣기 → 낱실고르기 → 베날기 → 낱실 꺾기 → 베매기 → 베짜기



<김준근. 여인방적하는 모양>

베틀에 실을 올리기 전 준비하는 과정이 묘사되어있다. 왼쪽 아래의 부인이 씨아를 돌려 씨를 빼내면 위의 여인은 대나무로 만든 솜채로 솜을 두드려 잠재운다. 잠재워진 솜은 무명활의 활줄을 튕김으로 부풀려지고 푸른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고치를 말면, 물레를 이용하여 실뚫을 짓는다. 그림 하단의 할머니는 실뚫으로 씨실꾸리를 만들고 있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한국농기구도감』,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남도의 길 · 목화의 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9.

조흥윤,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

문익점과 무명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1.

송응성, 천공개물, 전통문화사. 1997